제주바투리

창간호
2020년 5월
반년간

열린 창
창간에 부쳐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제주학 연구노트
제주학연구센터 소개
2020년 주요 사업
2019년 주요 성과
발간 목록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지입니다.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가시리 승지물당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동상동과 두리동 주민들이 이용했던 당이다. 가시천 천변에 거대한 암괴 위에 구실잣밤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암괴 밑으로 '궤'의 모습을 하고 있다. 두통 등을 다스리는 이 당을 주민들은 '돗당'이라고도 부른다. 2009년 촬영 당시에는 지전과 물색, 양초 켰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사진 **강정효**(사진가, 前 제주민예총 이사장)

섬의 근원이자 기원인 것들아

잊지마세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 뒤에 꼭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믿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힘을 믿죠.
뭉게지고, 휩쓸리고, 구부러진 채.
당신들이 뽑아내지 않는다면.
내 몸은 마디마디 관절마다 섬의 바람으로
오그라지고, 덧씌워졌죠.
돌이었다가 뿌리였다가 깊은 기억과 오래된 상처가
더 옹이진 몸을 만들었다죠.
잊지마세요. 돌에 박힌 바람, 뿌리의 시간 속엔
수많은 고개의 조아림이 있었음을.

잊지마세요. 지금 반짝이는 것들이
당신들의 손가락새에서 발 아래서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당신들의 견고한 미래는 파도치는 어제를 견뎌낸
사람들의 삶 속에 있음을.
이 땅의 흩어지는 말들에, 오래전 사람들의 새김질 속에,
거친 숨비소리에, 다른 어느 대지의 바람 속에선 태어나지
못했을 숨은 보석들에 있음을.
그러니 함부로 잊지마세요. 저 계곡의 바람으로 단단한,
겹겹 기원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이 다시 뿌리가 되고 있는 것임을.
이것은 섬의 근원이자 당신들의 기원, 내일인 것을.

글 **허영선**(시인, 제주4·3연구소장)

“〈제주바투리〉가 제주학을 아끼는 분들에게 소통의 장(場)이 될 수 있기를”



김 동 전
제주연구원장

지방자치제 실시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世方化)의 확대는 각 지역의 문화와 지역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2011년 8월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진흥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연구 과제 · 학술세미나 · 총서 및 번역서 발간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학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역사 편찬 사업 · 제주어 보전 및 발전 사업을 통해 제주학의 토대가 되는 기초 학문들의 보루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제주학 연구의 대내외적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제주학 관련 연구자와 도내외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학을 주제로 한 도민 강좌와 제주학대회 등을 개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연구원은 제주학연구센터가 다음 10년, 20년, 30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앞으로 제주학 연구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학연구센터 소식지 〈제주바투리〉가 창간됩니다. 〈제주바투리〉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제주학의 주요 쟁점을 보기 쉽게 담아낼 것입니다. 〈제주바투리〉가 제주학을 아끼는 분들에게 소통의 장(場)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바투리〉, ‘따뜻한 제주학’ 공유하는 창구이길”



김 순 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학연구센터가 소식지 〈제주바투리〉를 창간합니다.

소식지 이름을 〈제주바투리〉라고 정한 것은 제주학의 바탕이 제주와 제주사람들의 삶과 역사,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투리’는 바탕, 즉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기초나 근본을 의미하는 제주어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2일 제주도의 인문 · 사회 ·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제주학 정책 연구, 제주어 조사 및 연구 사업, 역사 발간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 대외 교류 사업 등을 통하여 제주학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내년이면 센터 개설 10주년을 맞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제주학연구센터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제주학의 연구 영역을 넓히고, 밖으로는 제주학의 지평을 넓히려고 연구진과 도민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학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제주바투리〉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자와 도민 사회의 많은 성원과 채찍을 기다리겠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허남춘 · 양정필 교수님, 여는 글과 사진을 보태준 허영선 · 강정효님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센터 식구들에게도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재단법인 독립이 우선적 과제

허 남 춘(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운영위원장)



센터에 바랄 게 너무 많다. 센터가 해야 할 일도 많다. 하지만 줄여 몇 가지를 말한다. 우선 21세기는 지방학의 시대다. 국가 혹은 민족 중심의 20세기가 파괴한 지방학을 되살려야 한다. 과거 독립국이었던 제주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작은 '탐라'여야 한다. 탐라의 역사는 글로 쓰인 것이 미미한 대신,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전승 자료가 풍부하다. 구비전승 자료를 채록하고 이 속에서 탐라의 정신을 찾는 것이 센터의 출발이어야 한다. 제주 정체성을 위해서는 '제주학' 학문의 독립이 필요하다.

첫째, 센터가 추진하는 재단법인으로의 독립이 우선적 과제다. 지자체가 개발센터를 두고 그 하위에 지역학 센터를 두었는데, 돈 버는 일의 하위에 정체성 연구 센터가 자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재단법인 독립이 우선이다. 1차로는 25명 정도의 연구진을 가진 인문학으로 출발하고,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5년 뒤에는 2차로 50명 정도의 연구진을 가진 인문 · 사회학으로 도약하고, 10년 뒤에는 3차로 100명 정도의 연구진을 가진 인문 · 사회 · 자연 · 해양학으로 완성되면 좋겠다. '제주학진흥원' 정도의 이름이면 괜찮다.

둘째, 센터의 연구진이 자체 연구와 사업에도 벅찬데, 지자체에서 밀려오는 다른 사업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어졌다. 센터 연구원의 본분은 연구와 행정을 반반 함께 담당해야 한다. 1년에 한 편 정도의 연구 성과가 나오도록 연구원을 배려하면 좋겠다.

셋째, 도내 제주학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와 개인 연구소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좋겠다. 연구소를 지원하고 공간도 나누어주고,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도서관도 갖고, 공동연구와 토론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어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큰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고,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공동연구 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

넷째, 사라지는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제주어박물관〉을 만들면 좋겠다. 박물관이 사라지는 것을 박제한 장소만은 아니다. 재인식의 기회를 널리 누리고자 함이다. 그래서 서울에는 한글박물관이 있지 않은가. 제주는 문자 대신 말 박물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 방송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주어 방송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센터가 담당하면 좋겠다.

제주는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니다. 제주는 태평양을 향한 대한민국의 교두보다. 오래 전부터 해양을 통해 주변 국가와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향하는 해양학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를 중시하는 학문체계가 잘 갖추어지길 기대한다. 센터 산하에 〈태평양학 센터〉를 두고 해양의 시대를 견인하길 기대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 경제 단상(斷想)

양 정 필(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제강점기 제주도 사람들은 살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하였다. 1930년대 5만여 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 또 수천 명의 해녀들이 타지로 물질을 떠났다.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차별과 천시를 받는 타지로 일하러 간 것은 고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재일제주인과 출가 해녀의 존재 자체가 일제강점기 제주도 사람들의 가난함을 웅변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일제하 제주도 경제에 대한 나의 선입관을 무너뜨리는 자료를 보게 되었다. 2018년에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대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 등과 석주명 저작을 살펴본 적이 있다. 석주명은 1936년에 1개월간 나비 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여행하고 제주도에 대한 인상을 글로 남겼다. 그 글에는 나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제주도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판풍(大阪風)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육지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보된 느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소도시의 상점이나 이발소 등도 개성보다 낫다고 평가하였다.

석주명의 제주도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개성보다 낫다는 평가는 더욱 그랬다. 박사학위 논문이 개성 상인이어서 일제강점기 개성이 한반도 최고의 부자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가난한' 제주도를 개성과 비교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가 개성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는 석주명의 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석주명이 개성에 있는 송도고보(송도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 또 송도고보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하여서 누구보다 개성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가 개성과 비교한 제주도 인식을 도외시하기도 어려워서 난감하였다.

그러다 2019학년도에 대학원 수업에서 「매일신보」의 제주 관련 기사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발간된 「매일신보」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도 관련 1차 사료를 시계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매일신보」의 제주 관련 기사 중에는 재일 제주인의 송금액, 출가 해녀들의 수입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 액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각각 70~80만 원 내외여서 둘을 합하면 150만 원 내외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15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다. 이 기사를 통해서 1930년대 재일 제주인과 해녀들이 벌어온 수입만 해마다 1백만 원을 상회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의 액수들을 접한 후에는 석주명이 제주도에 대해 쓴 인상이 과장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필자가 막연히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가난하였다는 선입관이 자료에 의해 부정되는 순간이었다. 여전히 일제강점기 제주도 경제에 대한 인상은 한두 자료에 의한 것이어서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실증적으로 해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기존 선입관을 깨뜨리는 자료의 발견은 연구를 추동하는 동력이 되므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여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11

08.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09. 제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 수립
10. 제주학연구센터 현판식
11.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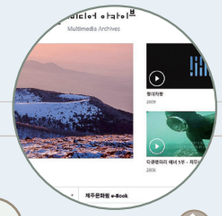
08. 제1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지속사업)
08. 제주학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11.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12. 「제주어 표기법」 제정 관련 세미나

2013



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10. 제주어 보전 방향 관련 세미나
12. 「제주어 표기법」 제정

2014



02.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 위촉
03. 제주학 아카이브 개설
07.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한국지역학 네트워크 공동)

2015

03. 제주학 연구 및 출판비 지원(지속사업)
09. 제주민요사전 발간
10. 제4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2016

02.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 위촉
03. 제2대 센터장 임용
04. 제1회 제주학 정책포럼
07. 제주학 아카이데미 구술사 강좌(~2018)
10. 제1회 제주학대회(지속사업)



2017

06. 제주어 공모전(지속사업)
06.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발간(지속사업)
09. 해녀어업 보존·발전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 (지속사업)
12.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지속사업)
12.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발간(지속사업)
12.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업무협약

2018

02.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 위촉
04. 제주고전 강독회 운영(지속사업)
04.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협약
05. 강원학연구센터 업무협약
07.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지속사업)
09.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12. 〈제주 고문서(Ⅰ)〉 발간(지속사업)

2019

03. 제주어종합상담실 개소 및 '들어봅서' 전화 개통
04.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06. 일본 가고시마대학 국제도서교육연구센터 업무협약
07. KCTV제주방송·(사)제주어연구소 제주어 보존·전승 업무협약
09.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과 집필 지침 발간
11. 전북학연구센터 업무협약
11.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업무협약
12. 〈프란게 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재일조선인 미디어(Ⅰ)-〉 발간
12.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길 이야기〉 발간

2020

01. 제3대 센터장 임용
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❶
02.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 위촉
0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업무협약
0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업무협약
05. 기관지 〈제주바투리〉창간

업무 협약

2011	12.14.	제주학회
2012	03.13.	국립제주박물관
	08.0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04.17.	제주문화방송(제주MBC)
2014	06.13.	KCTV, 민요학회
	06.24.	한라일보
2017	03.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8.16.	원광대학교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08.30.	제주의소리
	12.14.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2018	02.19.	강원학연구센터
	04.30.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02.08.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06.10.	일본 가고시마대학 국제도서교육연구센터
	07.24.	KCTV 제주방송, (사)제주어연구소
	11.12.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1.21.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20	04.2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05.08.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주학대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2012		탐라·제주학, 지구환경학을 지향한다
2013		제주문화경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2014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
2015		문화자원론과 지역학
2016		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제주문화가치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주학의 역할
2017		세계 섬, 해양문화와 미래비전
2019		소멸 위기 제주어 보전과 부흥 방안,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듣는다



2020년 주요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 관리 및 디지털화, 공공 서비스 제공

1.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인프라 관리
2. 제주학 관련 디지털 콘텐츠 구축
3. 아카이브 구축 자료 연구 및 연구물 발간



제주학 관련 지원 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자 및 기관·단체의 연구 활동 지원으로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와 발전 도모

1. 기획 주제 공모 지원 사업
2. 자유 주제 공모 지원 사업
3. 제주학 총서 발간 및 번역·출판 지원 사업
4. 제주학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



제주학 교류·정책·교육 사업

국내외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제주학 연구 성과의 대중화

1. 제주학대회
2. 제주학 교육 사업
3. 대외 교류 및 정책 사업
4. 찾아가는 제주문화 아카데미



제주역사 편찬 사업







탐라 이래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과 제주학 연구 관련 기초 자료 제공

1. 유배 문화 자원 조사
2.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
3. 제주고전 강독회
4.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5.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 사업
6. 마을기록화사업(해녀 문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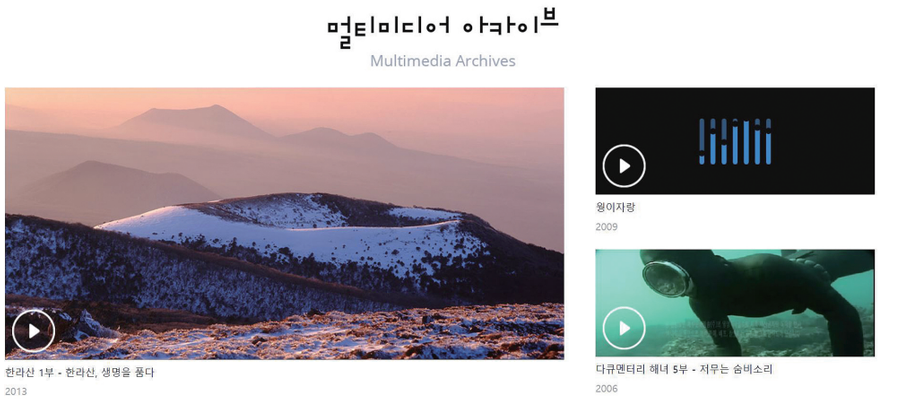
제주어 연구 사업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 수행으로 제주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림

1.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2.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3. 제주어 공모 사업 및 제주어 길라잡이 책자 발간 사업
4.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
5.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
6.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주년 기념 행사
7.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사업

2019년 주요 성과

제주학 아카이브의 무형유산자료 구축



제주학연구센터가 개원 초기부터 관심을 둔 것은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DB화, 보존 관리,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활용을 통한 대내외 홍보였다. 제주학 아카이브는 웹사이트를 통해 학자나 일반인들이 제주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제주학 자료의 글로벌화와 제주학 관련 자료의 부가가치 상승을 통한 지식 자산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자료 중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제주도 무형유산에 관한 자료(제주해녀, 제주민요, 제주무속 또는 당, 무속 본풀이 등)이다. 2019년에 구축한 자료는 사진 자료(여신당 409점, 송당마불림제 등 무속사진 325점 등), 동영상 자료(서순실 본풀이 12본 영상 등), 제주학 DB(단행본 26건, 연구물 929건), 책자 · 연구보고서 등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 제주해녀문화 학술대회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 11월 29일 메종글래드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와 항일정신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가치를 인식하고, 3 · 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주해녀항일운동의 다원적 가치를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다.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등재 기준에 맞춰 등재 신청서 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종휴 길’ 조성 및 〈부종휴 길 이야기〉 발간

제주세계유산본부와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 말 ‘부종휴 길’ 조성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부터 제주학 선각자 고(故) 부종휴 선생이 다녔던 길을 조사 · 고증하고 조형물 설치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고 부종휴 선생이 김녕초 꼬마탐험대와 함께 만장굴 탐사를 위해 걸었던 길(부종휴 만장길)과 한라산 식물조사를 위해 걸었던 길(부종휴 한산길)을 설명하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길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제주학 총서 41호, 42호, 43호 출간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 제주학 총서 3권을 발간하였다. 총서 41호 〈재일 1세의 기억〉은 식민지배와 해방, 전쟁, 분단 등 민족 수난의 역사를 경험했고, 타국에서 빈곤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 재일 1세의 목소리가 담긴 증언집이다. 총서 42호 〈제주도개세(濟州島ノ概勢)〉는 1928년 7월 조선총독부 산하 전라남도청 제주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로 미국 하와이대학 해밀턴도서관이 소장하는 책자를 번역 · 발간했다. 총서 43호인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는 일본인 인류학자 이토 아비토(伊藤亜人) 전 동경대 교수가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제주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 기증으로 발간된 것이다.

제주학 교류·정책·교육 사업 수행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 제주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일본 가고시마대학 국제도서교육연구센터,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제주학 연구비 · 학술세미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학 연구자들을 지원하였고, 제주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사업’ · ‘문화정책 워킹그룹’, 제주도의회와 ‘제주문화경관조례’ 제정을 위한 협업 등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수행했다. 제주와 서울에서 제주학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했으며, 제주학 컨텐츠를 활용한 SNS 페이지 운용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제주 역사의 체계적 정립과 제주 문화유산의 가치 연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역사의 체계적 정립 및 제주학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주 역사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여 발간하는 역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발간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III)-숙종대-〉 자료집에는 〈승정원일기〉 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한 소중한 성과가 담겨 있다. 제주 역사 편찬 사업과 함께 제주 해녀 등 제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와 제주학 진흥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고전에 빠지는 시간, 2019 제주고전 강독회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탐라의 역사 문화와 관련 깊은 한문 원전을 강독 및 해설하면서 장기적으로 탐라사 한문 원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 제주고전 강독회’를 운영하였다.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과 심재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강독자와 일반인이 함께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제7회 제주어 보존, 제주어 찾기 공모전 진행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 6월부터 인터넷신문 제이누리와 공동 주최로 ‘아름다운 제주의 말 · 글 찾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글쓰기 부문 50편, 동영상 부문 1편이 최종 응모하였고, 11월 2일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강봉수(시 ‘굴툭’), 최우수상 허정심(산문, ‘밤바르, 그 저슬의 바당’) 씨 등이 수상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제주학연구센터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 10여 년간의 제주도 변화상을 담은 종합지 〈제주특별자치도지〉(총4권)의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1982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되었으며, 5월 24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5월 28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어대사전〉은 '제2차,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주어의 핵심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는 ▲옛한글 입력 환경 ▲온라인 연동 서비스 ▲제주어 표기법 개정 등 현실적인 제언들이 공유되었다.

'제주어종합상담실' 개소 및 '들어봅서' 전화 개통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년 3월 26일 제주어에 대한 실시간 상담 창구인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열었다. 소멸 위기 제주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어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전용 상담 전화 '들어봅서'(☎1811-0515)와 전자우편(jejueo0515@hanmail.net)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토착 언어의 해' 기념 행사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앞에서 이동종합상담실도 운영(2019. 5. 9.)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총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해녀어업 보존·발전 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9월 20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제12회 제주해녀축제의 일환으로 '제주어업 보존·발전 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뿐만 아니라 부산, 거제, 통영, 울산 등 출가 해녀 47명도 참석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제3회 제주학대회 개최, 국내외 학자, 전문가 초청

2019년 11월 11일부터 13일,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한 제3회 제주학대회가 개최되었다. '소멸 위기의 제주어 보전과 부흥방안,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4개국 언어학자·방언학자를 비롯해 제주어 보전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는 활동가들이 참여해 학술대회, 포럼, 답사 등을 진행하였다.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한 (가칭) 제주학진흥원 설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한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2차에 걸쳐 수립하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분리 및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을 목표로 2020년 4월 24일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학 총서

번호	제 목	발간 연도
1	**제주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 백규상, 오승훈, 문순덕	2012
2	**전환기의 제주 도시 건축** 김태일, 강문규, 김대환 외	2012
3	**제주어와 영어로 곧는 제주 이야기** ∗ 문순덕, 오승훈, 원종섭	2012
4	**제주계록** ∗ 고창석, 김상옥	2012
5	**제주민요를 지킨 명창들** 좌혜경	2012
6	**제주통사** ∗ 김봉옥	2013
7	**제주 먹을거리 풍경** 현혜경	2013
8	**탐라사의 재해석** ∗ 전경수, 오창명, 김창현 외	2013
9	**세렌디피티로서의 제주문화** 김덕삼, 최원혁	2014
10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신재경	2014
11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 고동호, 정승철, 송상조 외	2014
12	**제주방언 통사의 기술과 설명** 김지홍	2014
13	**제주어 표기법 해설** ∗ 고재환, 송상조, 김지홍 외	2014
14	**탐라순력도 탐색** ∗ 오창명	2014
15	**제주민요사전** ∗ 좌혜경, 김순자, 변성구 외	2015
16	**제주의 잣성** 한상봉	2015
17	**김만덕의 실천적 삶과 제민정신 연구** 이정화	2015
18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강정식	2015
19	**제줏말의 이해** ∗ 고동호, 송상조, 오창명 외	2015
20	**재일조선인 문제의 기원** 문경수, 고경순, 이상희	2016
21	**제주의 원풍경 아이덴티티** 오선아	2016
22	**제주사난 제줏사름** ∗ 오승훈, 오창명, 문순덕	2016
23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김범훈	2016
24	**섬의 산물** 고병련	2016
25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신연우	2017
26	**이방익 표류기** 권무일	2017
27	**제주학개론** ∗ 좌혜경, 전영준, 조성윤 외	2017
28	**제주 잠수의 바다밭** 안미정	2017
29	**원시의 신사를 찾아서** 오카야 고지, 이예안, 이윤주	2017
30	**제주바당 표류의 기억** 진선희	2017
31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양영자	2017
32	**일곱 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라왕국** 강문규	2017
33	**제주의 이야기 유산** ∗ 좌혜경	2017
34	**済州歷史紀行** 이영권	2018
35	**제주서사무가집** 현용준, 현승환	2018
36	**해녀노래주석사전** 이성훈	2018
37	**제주 언론의 선비 논객 고영일** 이문교	2018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 이소라	2018
39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고광민	2019
40	**신비, 성실, 모험의 제주 전통경관** 데이비드 네메스	2019
41	**재일 1세의 기억** 오구마 에이지, 강상중 편	2019
42	**제주도개세 濟州島ノ槪勢** ∗ 현혜경, 이상희, 마치다 타카시 편역	2019
43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 이토 아비토, 강경희	2019

∗ 해당 도서는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연구보고서

번호	제 목	연구자	발간 연도
0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	문순덕, 김태윤, 정승훈 외	2011
1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 계획**	좌혜경	2012
2	**제주학 연구기관 · 단체편람**	좌혜경	2012
3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 방안**	좌혜경, 고영자	2013
4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오승훈, 문순덕, 김진영	2012
4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전 방안**	양창용, 양세정	2013
5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연구**	구모룡	2013
6	**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좌혜경, 정광중	2013
7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방안**	오승훈, 문순덕	2013
8	**제주어 표기법**	고재환, 송상조, 김지홍 외	2013
9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방안**	김동전, 강만익	2014
10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	오승훈, 강세현	2014
11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표명환, 강명수, 강창보	2014
12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좌혜경, 강정식	2014
13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오승훈	2015
14	**이어도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강병철, 양금희, 권순철	2015
15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홍기표	2015
16	**제주 해녀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민호, 문현식, 홍효정	2015
17	**제주학 시민신탁과 대중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현혜경, 강수경	2015

번호	제 목	연구자	발간 연도
18	제주도 전설지 현지조사 및 자원화 방안 연구	좌혜경, 현길언	2015
19	사용자 중심의 제줏말사전 발간 방안	오승훈, 오창명	2015
20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문순덕, 오창명, 김원보 외	2015
21	제줏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문순덕, 고동호, 양창용	2015
22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강경민, 민기, 김성준 외	2015
23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강경희, 김태일, 박경훈 외	2015
24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	염미경, 장혜련	2015
2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황석규, 고광명, 김순임	2015
26	재외 제주인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조사 연구	고계성, 황정진	2015
27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홍기표	2015
28	'뜨는' 제주와 제주를 '뜨는' 주민들. 뜨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한가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기초조사	김주호, 손주영, 이은정	2015
29	제주 재래종 감귤로 만든 꽃차의 기능성 연구 및 상품 개발	박석근, 최칼라	2016
30	제주 역사인물 전승 조사와 문화자원화 방안	좌혜경, 김일우	2016
31	제주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운동 연구 -토지수용령을 중심으로-	황석규, 김동주, 강남규	2016
32	제주 정착주민 네트워크 현황 조사를 통한 제주 정착 과정 고찰	강봉수, 김민영, 김미량 외	2016
33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	이호룡	2016
34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에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강창화, 고미경, 김정선 외	2016
35	제주학 시민 향유 실태 및 수요 조사	현혜경, 김대호	2016
38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2017~2021)	박찬식, 좌혜경, 현혜경 외	2016
39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허남춘, 김현선, 강정식 외	2017
40	우도 수성화산활동에 수반된 갈대화석 산출과 고환경 복원	강순석, 류춘길	2017
41	제주 역사문화 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김동전, 심승구, 이헌종 외	2017
4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고광명, 황석규, 송훈	2017
43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좌혜경, 강소전	2017
44	재일제주인 1세 구술 생애사 연구	김보향	2017
45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김석윤, 송정희, 이재섭	2017
46	제주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운동 연구 - 사수동과 예래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민, 신정수, 강남규	2017
47	세계 섬 문화 비교연구 - 사르데냐와 제주도 -	박찬식, 김은실, 장수현 외	2017
49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김순자, 강영봉, 강세현 외	2018
50	제주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 과학지식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경희	2018
51	제주 해안마을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조사 연구	고광민, 고승욱, 박정근	2018

번호	제 목	연구자	발간 연도
52	근대 제주 사진엽서 자료 연구	고영자, 김은희	2018
53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양정필, 윤용택, 강영봉 외	2018
54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현혜경, 부혜은	2018
55	공공외교를 통한 열린 제주학의 확산 방안 연구	강경희, 김순임, 고은경 외	2018
56	2018 하와이대학교 제주학 자료 현황과 활용을 위한 기초 조사	현혜경, 강수경, 한형진 외	2018
57	제주신화 일반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연구	좌혜경, 최원오	2018
58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현황과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연구	김범훈	2019
59	선사인류의 제주도 정착 및 적응과정 복원: 고고자료와 절대연대측정치를 중심으로	고재원, 박경민, 김명진	2019
60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 시스템 내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유원희, 진유라, 서세진	2019
61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과 집필 지침	김순자, 오창명, 신우봉 외	2019
62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김종민, 한상희, 강남규	2019
63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양세영, 심규호, 후림 외	2019
6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	황석규, 고광명, 송훈	2019
65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좌혜경, 조현설	2019
66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지역 전쟁 유적지 조사 연구	김선필, 조성윤, 고성만	2019

제주역사 자료 총서

번호	제 목	발간 연도
1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동아일보 -	2016
2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일본어신문 -	2016
3	承政院日記 濟州記事(Ⅰ) - 孝宗代 -	2017
4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조선일보 -	2017
5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시대일보 외 -	2017
6	承政院日記 濟州記事(Ⅱ) - 顯宗代 -	2018
7	제주 고문서(Ⅰ) 제주 상창리 梁氏家 고문서	2018
8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매일신보 -	2019
9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부산일보 -	2019
1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III) - 肅宗代 -	2019
11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Ⅰ)	2019
12	제주 고문서(Ⅱ) 제주 도두리 고문서	2019

▪ 연구보고서, 제주역사 자료 총서, 기타 편찬 도서는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기타 편찬 도서

제 목	발간 연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0권	2017
제주어구술자료집 11-20권	2018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又忍 고수선傳	2018
2018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2018
구술로 듣는 제주사람 이야기	2018
구술사로 이해하는 제주사회, 방법과 실제	2018
제주학 시민학교 1기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제주사회론	2018
제주특별자치도지	2019
제주어구술자료집 21-28권	2019
2019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2019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길 이야기	2019
신흥1리 마을 주민들이 전하는 신흥1리	2019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❶	2020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역사, 민속, 문화 및 다방면에 걸친 제주학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신 자료는 수집자문위원회의 평가, 분류 이후 디지털로 변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써 제주학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료 대상

제주학 연구물, 간행물, 고문서 등의 문헌, 구술이나 영상자료(CD, DVD), 사진 등의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

1. 개인(학자 또는 사진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2. 기관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

기증 절차



온라인 기증 참여
오픈 아카이브의
기증 신청 메뉴 클릭
www.jst.re.kr

자료 입력
양식에 맞게
자료 입력

자료 평가
수집자문위원회
감정/평가

수증 자료 처리
자료 기증(위탁)
증서 발급

자료 탑재
자료 분류 및
포맷 변환(DB화)

문의 전화 064) 747-613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이도1동)
Tel. 064) **726-5623** / FAX.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아카이브 관리	064) **747-6138**
교류 · 정책 · 교육 사업	064) **726-5623**
역사편찬 연구 및 사업	064) **747-6137**
제주어 연구 및 사업	064) **726-9154**
제주어종합상담실	**1811-0515**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일시: 2020년 9월 17일 ~ 19일
장소: 제주도내 일원

주제 어로기술과 지속가능발전

제4회 제주학대회

일시: 2020년 10월 15일~17일 / 장소: 제주도내 일원

주제 근대성과 지역 정체성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0년 5월 15일
발행인 김동전
편집인 김순자
편집위원 김선필 · 양지혜
디자인 ㈜스위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이도1동)
전화 064-726-5623
팩스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09
9 772733 493008
ISSN 2733-4937